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결정

제 5호

주제105(2016)년 6월 2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국평화통일위원회에 대하여

민족화해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실현하는것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책임진 조선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앞에 나서고있는 가장 중대하고 필한 과업이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민족분열의 비극을 끝장내고 온 겨레가 일일천주로 갈망하는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내외반동세력들의 온갖 도전을 단호히 짓부셔 조국통일운동을 끝까지 추진시켜왔다.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애국위업으로 내세우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생애의 절기간 철저한 민족자주정신과 열렬한 민족애, 교철한 혁명적

로 민족의 통일의지를 비상히 높여주시고 거족적 통일운동의 전성기를 펼쳐주시었으며 불멸의 통일대장을 마련하시고 그 실천을 위하여 불면불휴의 투고와 심혈을 바치시었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고려민주헌법공화국장립방안,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조국통일3대원칙으로 정립하시고 민족대단결5대방침을 비롯한 탁월한 사상과 로선을 내놓으시며 민족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었으며 승고한 통일애국지와 대용담으로 우리 민족끼리리념을 력으로 하는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을 채택발표하도록 하시어 조국통일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놓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필생의 뜻과 운운을 관철하여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기어이 이룩하려는 확고한 결심과 의지를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된 정세와 시대발전의 요구에 맞게 자주적인 조국통일로선을 제시하시고 조국통일의 대령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을 헌명하게 이끌어주고 계신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방략과

방도책을 전면적으로 밝힌 조국통일로선과 방침을 제시하신것은 삼천리강토우에 존엄높고 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전환적기회를 열어놓은 역사적사건으로 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온 민족의 통일년념과 지향을 반영하여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한 주제적인 조국통일로선과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민족의 자주적운명과 통일년원의 위대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을 강력하게 조직전개해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국평화통일위원회에 내운다.
2.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을 없앤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이 결정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태를 세울것이다.

신문의 기사를 번함없이 들고나가자 않았더라면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 과연 어떻게 되었겠는가.
어버이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의 길이 아무리 험난하다 해도 우리는 그걸로만 가야 한다. 설사 그 길에 지뢰밭이 있다 해도 우리는 그 걸로 가야 한다!
이런 철의 신념과 의지를 지니시고 우리 장군님께서께서는 적들의 끈질긴 압살책동을 필승의 선군혁명명도로 깰 용케버리시며 부강조국건설의 단연 토대를 마련하시었다.
조선혁명의 백송의 상징인 주체의 가지, 선군의 가지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승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조국의 앞길에 힘차게 나뭇가지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 사업문화보고에서 존엄높고도 지향한 투쟁속에서 이 땅위에 이룩된 세기적인 변화와 위대한 승리를 이끌어주시었으며 인민들의 혁명위업수행에서 역사적인 전환을 이룩하시었습니다.
조선군이아말로 최대의 애국이고 주체이다!
어버이장군님께서께서는 선군정치로 조국과 민족의 자주성과 존엄을 지켜주시고 빛내주시었다.
물어보시면 세계사회의 체제의 붕괴와 민족의 대국성,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과 흑심한 자연해해속에서 우리 당이 주체의 가지,
헌사기자 강철 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결 양

조선혁명의 영원한 진로를 밝혀준 역사적인 카툰회의

어느덧 8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추억은 주체의 리념이 양복을 입어내려 온 누리를 밝히던 력사의 언덕으로 끝없이 달린다.
주제 19(1930년 6월 30일, 카툰의 진행과 교섭에서는 불빛이 흘러나오고있었다.
바다에는 초물방울이 떨어졌고 천정에는 여러개의 남보들이 매달려있었다.
너무도 청명하고 소박한 이곳에서 우리 민족사에 특기할 위대한 사변이 일어나고있음을 어찌 알았더라.
전인미답의 혈로를 택하시며 주체의 진리를 밝혀내시고 사대의 교조, 혼란과 괴멸로 일룩진 우리 인민의 민족해방투쟁에서 총지부를 책임지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력사상 처음으로 주체의 가지, 선군의 가지를 높이 추켜드리고 조선혁명의 영원한 백송의 진로를 밝혀주시던 10대의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은 오늘날 이 나라 전민족의 가슴을 새겨서 격동시키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주제사상을 창시하여 주제혁명의 새시대를 개척하시고 주제사상을 구현하여 여러 단계의 사회혁명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었으시며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불멸의 업적을 쌓으시었다.》
술은 사상에 의하여 지도되는 혁명투쟁만이 실패와 우여곡절을 모르고 오직 끝까지 승리의 날까지 갈고 모든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는 력사의 진리이다.
이렇게 혁명투쟁에 나서신 첫 시기

에 벌써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고 민족해방투쟁을 승리로 이끌려면 새로운 지도사상이 있어야 한다는것을 깊이 절감하신 우리 수령님이시었다.
강도는 혁명의 길. 올바른 투쟁의 길을 찾지 못해 우리 민족은 얼마나 미련 대가를 치르어야 했었는가.
개인과로와 청년도 하여보고 괴담과 폭동도 일으키면서 나라를 찾고 민족의 존엄을 찾았고 괴도 뿌리며 불부림했지만 가슴아픈 실패만을 체험하지 않았던 언덕이었던 조선인민이었다.
다들오면서 조선혁명의 진로를 모색하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사색의 폭과 깊이를 우리 어찌 다 헤아릴수 있겠나.
천리백해의 예지와 비범한 통찰력으로 선형세대의 전략과 로선의 약점을 전면적으로 꿰뚫어보신 위대한 수령님의 가슴속에서는 같은 신념이 맥박치고있었다.
선형세대의 운동자들은 한결같이 인민대중이 혁명의 주인이며 혁명을 추종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진리를 무시하고있었다. 수백만대중의 조직된 힘에 의거하여 일제를 타도할 수 있었는데 우리 나라의 반일운동자들은 혁명도 독립전쟁도 특수한 몇몇 사람들에 의지하는것으로 알고있었다. 조선의 산 현실에 부합되는 좋은 지도의 길을 내놓자면 고전이나 다른 나라의 경험을 절대하지 말고 모든 문제 자체의 실정에 맞게 독자적으로 사고하고 독자적인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우리가 믿을것은 인민대중의 힘밖에 없다. 2천만의 힘을 믿고 그 힘을 하나로 묶어세워 일본제국주의자들파의 철진을 버리자.
철투철기 자주로 일관된 위대한 수령님의 비범한 사상과통찰력에 의하여 주체의 원리가 밝혀지고 조선혁명의 주체적인 로선과 전략전술들이 만들어졌다.
정명학교의 교실에서 열린 공명 및 반세칭년동맹지도간부회의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 민족해방운동의 역사적교훈을 분석총화하시면서 조선혁명의 주인은 조선인민이며 조선혁명은 어디까지나 조선인민자재의 힘으로,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수행하여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천명하시었다.
카툰회의 보고에서 밝혀진 조선혁명의 성격과 인세와의 부강투쟁로선, 반일민족통일전쟁로선, 혁명적당장전로선과 이르기까지 모든 독자적인 로선과 방침들은 우리 수령님의 결정 한 자주정신의 응결체였다.
반세칭년동맹민주주의혁명,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조선혁명의 성격은 고전에도 없고 어찌 그 어느 나라에서도 내놓은적이 없는 새로운 정지성이었다.
남들이 만들어놓을것을 맹목적으로 따를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이 선지이라는 판표로부터 우리 나라에 조선된 계급관계와 우리 혁명 자체의 실정에 맞게 독자적으로 사고하고 독자적인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그이의 창조적인 사색에 의하여 고전에도 없는 정지, 우리 나라의 실정에 부합되는 가장 과학적인 조선혁명의 성격이 규정되게 되었으며 우리 민족자재의 힘으로 일제를 타도하고 조국을 해방하기 위한 부강투쟁로선이 제시되게 되었다.
이제인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것은 애국심뿐이었고 힘이 없었나, 우리가 3-4년간 싸워왔던 한것은 일본의 힘을 경시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애국심이 그보다 더 강하고 정지였다고 생각했나, 혁명적투쟁을 촉진이냐, 우리에게 당파가 있었나, 그것은 2천만민중의 힘이 있었나, 2천만을 잘 모른시켜 도처에서 들고일어나 일본군정부를 축진시킨 나라는 독립전쟁을 일으키려는 배심이 우리에게 있었나,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투쟁투쟁을 본래있게 해나가자면 대중적지반을 넓어야 한다고 생각했나,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을 위한 투쟁인것만 같지만 인민대중이 참가하지 않으면 안되는 승리를 내겠다는 주체적관점의 체현자이신 우리 수령님이시었다.
오직 이에게서만이 조선사람자재의 힘으로 일제를 타도하고 친인민적혁명방향을 일제를 반대하는 모든 혁명을 하나로 굳게 묶어세워야 한다는 철의 논리를 내치우시고 친민족의 단합된 힘에 의거하여 혁명을 전면적으로 세시대를 열어놓으실수 있었다.
그것이 얼마나 훌륭했나.

한일투쟁투쟁시기로부터 오늘날에 이르는 우리 혁명의 전로장은 카툰회의에서 제시된 주제적인 정명성이 확증된 뜻깊은 행로이기도 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신 항일투쟁대로가 실한봉이 흰쓰는 백두봉아의 흑안속에서 발돋움하여 투쟁의 강도 일제와 끝까지 싸워이겨주셨던것은 인민이라는 강력한 생체가 있고 인민대중이라는 무한대의 바다가 있었기때문이었다.
해방후 새 조국건설로선과 로지개혁명, 전후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정명성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데 대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과 농업협동화방침,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 경제건설과 국방강화의 병진로선, 3대혁명로선...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심단결된 인민의 힘을 믿으시고 인민들속에서 내놓으신 자주적인 로선과 정명적으로 하여 우리는 언제 한때 결노를 맺거나 남의 눈치를 본적이 없었고 남의 것을 기계적으로 본떠거나 남에게 손을 내밀어본적도 없었다.
그 어떤 투쟁한 환경속에서도 사상이나 주제, 정지에서 자주, 경제에서 지립, 국방에서 자립의 원칙을 견지하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투쟁한 자주적정명과 결연한 투쟁으로 하여 조선혁명은 사소한 우여곡절도 없이 승승장구하여왔다.
물어보실수록 10대의 시절에 조국과 혁명의 단연미래를 담보하는 위대한 진리를 밝히신 어버이수령님의

결정된 위헌상에 경탄을 금할수 없다.
세계의 위인사를 보아도 우리 수령님처럼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에 세계사적인 의의를 가지는 불멸의 사상을 창시하시고 오직 주체의 한길을 따라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인도하신 그런 위인은 없었다.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혁명위업에 대한 무한한 헌신성, 비범한 사상리론적지지를 발휘하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만이 인류사적인 위대한 공적을 이룩하실수 있었다.
이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께서는 위대한 주제사상에 대하여 과학적인 해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위대한 주제사상을 창시하시으로써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에게 혁명승리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었으며 인민들의 혁명위업수행에서 역사적인 전환을 이룩하시었습니다.
조선군이아말로 최대의 애국이고 주체이다!
어버이장군님께서께서는 선군정치로 조국과 민족의 자주성과 존엄을 지켜주시고 빛내주시었다.
물어보시면 세계사회의 체제의 붕괴와 민족의 대국성,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과 흑심한 자연해해속에서 우리 당이 주체의 가지,
헌사기자 강철 남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공고민주주의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었다

킨 사사
공고민주주의공화국 대통령
조제프 까빌라 까방게각하
나는 귀국의 독립 56돐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인민에게 충심으로 되는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귀국정부와 인민이 당신의 명도명에 외부세력의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나라의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기 위한 정의의 위업수행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시리라 믿으면서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앞으로 계속 확대발전되어나가기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제105(2016)년 6월 27일
평 양

쿠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특사일행 여러 곳 참 관

쿠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라울 카스트로 루스동지의 특사로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쿠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쿠바공화국 국가리사회의 부위원장인 알바로 로 안토니오 발데스 메싸동지와 일행이 29일 과학기술전당을 참관하였다.
손님들은 먼저 과학기술전당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영상작품을 훑다발을 정경하고 인사를 드피었다.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정력적인 명도명에 과학기술의 기관차로 눈부시게 비약해가는 선군조선의 기상을 안고 21세기 주체적진취예술의 상징으로 200일전투와 더불어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기 거세하게 떠오르고있는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시간의 가두너머 영웅들이 경제선동의 북소리를 그 어느때보다 높이 울리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정신력을 폭발시키기 위한 사상전, 선전선동의 원뮴함을 일으켜야 합니다.》
평양시의 가두너머 영웅들 5년여이 매일 평양영웅을 비롯한 70여개 장소에서 시민의 근로자들에 대한 출근전명령을 전후적으로 집행하여 수도전역을 들끓게하고있다. 그리고 지난해와 또 다르게 눈부신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여 만리마속도로 질풍같이 내달리는 시간의 60여개 전투장소에서 시대의 승걸이 울리는 경제선동을 파죽이 번리나가고있다.
력사적인 당 제7차대회에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위대한 실체가 결성된 후 평양시내영웅원회의에서는 시당위원회 지도부에 출근전명령과 경제선동을 보다 참신하고 거대하게 펼쳐나가기 위한 조직사업을 지휘하여 싸우고있다.
시내영웅원회의에서는 혁명의 한복수배리위를 역세게 떠밀고 나가는 우리 녀성들의 력적 기성과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해당 지역 가두너머영웅들의 경제선동투쟁을 하나로 통일시키는데로 출근전명령을 단

연회참가자들은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신 김정은 동지께 축하하는 경을 축인하여, 존경하는 평양 카스트로 루스동지와 라울 카스트로 루스 동지의 건강을 축인하여, 조선과 쿠바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전우적우애와 불멸의 친선단결을 위하여 잔을 들었다.
【조선중앙통신】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 평양 혁명사적지 참관

【평양 6월 29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회의에 참가한 대의원들이 평양시 혁명사적지를 참관하였다.
대의원들은 먼저 우리 로동계급이 자체의 힘과 기술, 자재로 만든 기관차용으로 사적지하고 선군조선의 장항한 앞날을 확인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영상을 모신 모자이크벽화에 훑다발을 정경하고 삼가 인사를 드피었다.
사적지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 시 그들은 우리 나라 군공공업 건설의 새 력사를 펼쳐보고 그 강회발전을 위하여 온갖 심혈과 로고를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깊이 새겨안았다.
당시의 기계와 도구, 무기부속품들이 원상태로 보존되어있

만리마속도창조로 떠나는 경제선동의 북소리

속도로 질풍같이 내달리는 시간의 60여개 전투장소에서 시대의 승걸이 울리는 경제선동을 파죽이 번리나가고있다.
력사적인 당 제7차대회에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위대한 실체가 결성된 후 평양시내영웅원회의에서는 시당위원회 지도부에 출근전명령과 경제선동을 보다 참신하고 거대하게 펼쳐나가기 위한 조직사업을 지휘하여 싸우고있다.
시내영웅원회의에서는 혁명의 한복수배리위를 역세게 떠밀고 나가는 우리 녀성들의 력적 기성과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해당 지역 가두너머영웅들의 경제선동투쟁을 하나로 통일시키는데로 출근전명령을 단

2016년 국제탁구련맹 세계순회경기대회 평양 공개탁구경기대회 시작

2016년 국제탁구련맹 세계순회경기대회 평양공개탁구경기대회가 29일 청춘거리 탁구경기관에서 시작되었다.
우리 나라와 로씨야, 몽골, 중국 선수들이 참가한 이번 경기대회는 성인급 남, 녀 단식, 복식 경기와 21살미만급 남, 녀 단식 경기로 나누어 진행된다.
이번 성인급과 21살미만급 남, 녀 단식 예선경기가 있었다.
전날과 마찬가지로 7월 3일까지 진행되는 경기대회는 여러 나라의 탁구선수들이 평시에 편미해온 기술을 경험하는 좋은 의의있는 계기로 평가된다.
【조선중앙통신】

쿠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특사 우리 나라 방문과 관련하여 연회 마련

쿠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라울 카스트로 루스동지의 특사로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쿠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쿠바공화국 국가리사회의 부위원장인 알바로 로 안토니오 발데스 메싸동지가 29일 주조 쿠바공화국대사관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



7월 중 지자기 현상
7월에 일기와 기러 지구물리학적요인에 따라 불리한 날과 시간(평양 시간)은 다음과 같다.
평양지방
4일(11시-13시)
7일(13시-15시)
10일(15시-17시)
17일(10시-12시)
20일(12시-14시)
28일(22시-24시)
충진지방
3일(10시-12시)
6일(12시-14시)
11일(22시-24시)
15일(9시-11시)
18일(10시-12시)
27일(6시-8시)
【조선중앙통신】